9일 오후 정부광주합동청사 대강당에서 열린 '제37회 광일보훈대상'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이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기관단체장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조국위해 희생 장한 삶에 박수

제 37회 光日보훈대상 시상식 … 5명 수상 영예

'제37회 광일보훈대상'(光日報勳大賞) 시상식이 우무석 국가보훈처 차장, 장갑수 광주지방보훈청장, 유제철 광주일보 사장을 비롯한 시민·가족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9일 오후 3시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대강당에서 열렸다.

조국과 민족을 위해 희생한 영령들의 유족과 전·공상 군경의 장한 삶을 되새기기 위한 이날 행사에서는 김경중(순직군경 유족·49)씨, 김종옥(공상군경 1급 처·61)씨, 문대식(특별부문·67)씨, 양병순(전상군경 유족·72)씨, 정충용(전상군경·61)씨 등 5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광일보훈대상'은 호국·보훈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보훈가족들에게 용기를 북돋아주기 위해 광주일보사가 제정했으며, 올해로 37번째를 맞았다.

김경중씨는 순직군경 유족의 장남으로서 생활 속 봉사활동을 전개해 광주시장상 등 다양한 수상 경력을 자랑하며, 김종옥씨는 공상군경의 부인으로서 장애 남편 병 수발과 보훈병원 봉사활동으로 귀감이 됐다. 문대식씨는 항일 독립정신 고양에 힘써왔으며, 양병순씨는 전상군경의 유족으로 시어머니 봉양 및 자원봉사 등을 실천해오고 있다. 정충용씨는 화랑무공훈장을 받은 전상군경으로 주민 봉사활동에 매진해왔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스폰서 검사' 솜방망이 징계

진상규명위 "대가성 없다" 10명 징계 요구

경남지역 건설업자 정모(52)씨가 제기한 '검사 스폰서 의혹'을 조사해온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성낙인)가 9일 향응 접대를 받거나 사건은폐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난 검사장급 2명 등 현직 검사 10명을 징계할 것을 검찰총장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 파문이 몰고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징계 강도가 약하다는 지적과 함께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 없이 활동을 마무리해 '반쪽 조사'에 그쳤다는 비판도 받게 됐다.

규명위는 이날 오전 서울고검에서 7차회의를 갖고 한달 보름여 동안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규명위는 스폰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영암출신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을 비롯해 비위 정도가 중한 검사 10명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이 중 성접대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 부산지검 부장검사 한 명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비위 사실이 있지만 징계시효가 지난 검사 7명은 인사조치하고, 상사가 주재한 회식에 단순히 참가해 비위 정도가 경미한 평검사 28명에게는 엄중경고할 것을 건의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씨와 검사들의 대질조사를 성사시키지 못해 핵심 의혹을 규명하는데 한계를 드러낸 것은 물론 징계의 범위나 강도나 외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규명위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검찰문화 개선 방안으로 전담기구 설치, 음주 일변도 회식문화 탈피, 대검 감찰부장을 외부인사로 임명해 2년 임기를 보장하고 감찰팀 구성 권한을 부여 등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광주 시내버스 952대 전체

에어컨 빵빵하게 튼다

여름철에 접어들었지만 시내버스 에어컨 가동이 안 돼 승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본보 지적 〈6월 9일자 6면 보도〉에 따라 광주시와 광주버스운송사업조합이 9일부터 광주지역 전체 시내버스 952대의 에어컨을 가동했다.

9일 광주시 관계자는 "승객 서비스 제공을 최우선으로 하도록 업체들과 협의해 연비에 상관없이 에어컨을 틀기로 했다"며 "이날 오전 시내버스 점검에 나선 결과 대부분이 에어컨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또 시내버스 운전원들이 기온과 습도 등을 토대로 자체 판단하도록 하고 승객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했다.

한편 여름철 에어컨 가동으로 연료비가 10% 가량 증가하자 버스업체들이 에어컨 가동 시기를 늦춘데다, 연비 점검을 의식한 버스운전사들 역시 에어컨 가동을 꺼려 최근 무더운 날씨 속에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우치동물원 코끼리 출산

체중 80kgg·키 70cm·코 길이 30cm

광주 우치동물원 코끼리가 최근 새끼를 출산했다. 이는 국내에서 15년 만의 새끼코끼리 탄생으로, 이 수컷 새끼코끼리의 이름은 '우치'로 지어졌다.

9일 광주시는 "우치동물원에서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초음파를 통해 임신이 확인된 코끼리 두 마리 중 한 마리인 라오스산 13살짜리 코끼리 '쏘이'가 지난 3일 건강한 새끼를 출산했다"고 밝혔다.

'쏘이'는 지난 3일 새벽 3시20분께 10여분의 진통 후 새끼 코끼리를 낳았으며, '쏘이'와 '우치' 모두 건강이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컷인 새끼코끼리의 체중은 추정으로 약 80kg, 키는 약 70cm, 코 길이는 30cm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이한열 열사 기념사업회 법인화 추진

1987년 6·10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화순출신 고(故) 이한열(당시 20세) 열사를 기리는 기념사업회가 법인화를 추진한다.

광주 진흥고를 졸업한 이한열 열사는 연세대 경영학과 재학 중이던 1987년 6월9일 '6·10 대회 참여를 위한 연세인 총결의대회'에 참석해 독재 타도와 호헌 철폐를 외치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쓰러진 뒤 숨졌으며, 고인의 사망은 6·10 민주항쟁의 기폭제가 됐다.

한편 6·10민주항쟁 목포행사위는 9일 오후 목포 하당 평화광장에서 6·10민주항쟁 기념 전야제를 가졌다.

/김호기자kimho@/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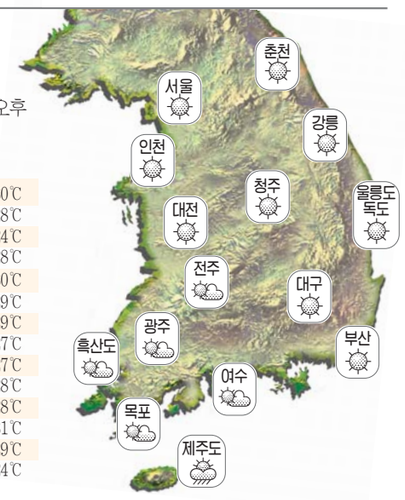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5시 18분 해짐 19시 46분 달뜸 03시 02분 달짐 17시 40분

땀이 송글송글

오전에는 대체로 맑겠고, 오후에는 구름이 많겠다.

광 주	맑은뒤구름많음	18/30℃
목 포	맑은뒤구름많음	18/28℃
여 수	맑은뒤구름많음	18/24℃
완 도	맑은뒤구름많음	16/28℃
구 례	맑은뒤구름많음	15/30℃
해 남	맑은뒤구름많음	16/29℃
장 흥	맑은뒤구름많음	16/29℃
고 흥	맑은뒤구름많음	15/27℃
순 천	맑은뒤구름많음	17/27℃
영 광	맑은뒤구름많음	16/28℃
진 도	맑은뒤구름많음	16/28℃
전 주	맑은뒤구름많음	17/31℃
남 원	맑은뒤구름많음	15/29℃
흑산도	맑은뒤구름많음	17/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0m
먼바다	동~남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황사지수
높음	주의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동~남동	0.5~0.5m
먼바다	동~남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동~남동	0.5~1.5m
먼바다	동~남동	1.0~2.0m

	밀물	썰물
목포	00:19 12:13	05:51 17:43
여수	07:10 19:52	01:13 13:13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1(금)	12(토)	13(일)	14(월)	15(화)	16(수)
날 씨						
최저/최고	18/27	19/27	18/30	18/30	18/29	18/29

지하철 상무역서 "대~한민국"

대형 TV 설치 응원전

월드컵이 개막되는 11일과 대한민국이 아르헨티나와 격돌하는 17일 광주지하철 상무역 등에서 응원전이 펼쳐진다.

광주도시철도공사는 9일 "남아공월드컵 개막과 함께 지하철 역사 응원전 등 다채로운 이벤트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철도공사는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며 최근 상무역과 남광주역에 소망나무를, 상무역에는 소망의 벽을 설치해 시민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월드컵 개막일인 11일 상무역에서 KJ앙상블의 색소폰 합주, 통기타 공연이 펼쳐지고 금남로 4가역에서는 꿈사랑노래봉사단의 흥겨운 공연으로 태극 전사들의 선전을 기원할 예정이다.

아르헨티나와의 경기가 열리는 17일에는 상무역에 대형 TV를 설치해 시민과 함께하는 응원전이 개최된다. 응원 행사장에서는 지니로니의 통기타, 김문옥 댄스퍼포먼스, 수령댄스협회의 밸리댄스 등 다양한 공연도 곁들여진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양성철 광주경찰청장 취임

양성철(55) 광주지방경찰청장이 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집무에 들어간다.

양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광주경찰청 2층 빛고을홀에서 직원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할 예정이다.

양 청장은 목포고와 동국대 경찰행정학과를 졸업한 뒤 경찰에 투신, 서울 서초경찰서장, 경찰청 생활안전과장, 전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등을 거쳤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